

화가 안종관(47)씨는 '공부가 삶의 전부'라는 자신의 소신 때문에 큰딸 정모(18)를 '살려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중학교 3년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반에서 35등을 밀도는 딸이 하도 딱해 입시·성적 위주의 교육을 펴는 강남 8학군을 과감히 포기하고, 강동구 상일동 상일여고에 진학시켰다.

"딸애의 성적이 조금 억지를 부리면 턱걸이로나마 8학군 고등학교 진학은 할 수 있었죠, 그러나 3년동안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자책하며 명들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8학군 학교에 보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대학입시 부담, 공부 부담이 없는 특지학교를 택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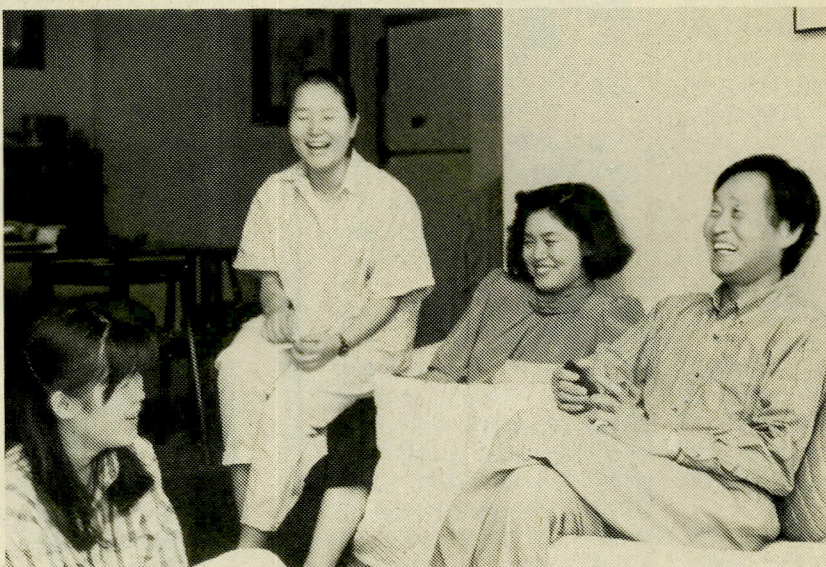
남들은 일부러 8학군으로 전학 시키는 판에 "강남에 살면서 8학

군 다. 뒤늦게 발견한 그림 소질과 밤늦게까지 그림에 몰두하는 노력 덕분에 "잘못하다간 우리 정모가 대학에도 가게 될 것 같다"고 안씨는 웃는다.

큰딸과는 달리 공부에 웬만큼 소질이 있는 둘째딸 지혜(16)는 강남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지혜는 "성적 신경 안쓰고 좋아하는 그림을 맘껏 그리는 언니가 너무 부럽다"고 말한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달달 외는 공부보다는 "이 시대 이 땅의 삶을 보

'공부지옥' 해방위해 변두리 학교로

강남 8학군을 포기하고...



큰딸의 고등학교 입학식날 "공부가 다는 아니라는 아빠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며 부동켜안고 울던 어머니와 정모가 "그때 아빠에게 속길 잘했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임완호 기자)

우리집 가정교육
소신껏 키운다

(2)

군 진학을 포기하는 것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는 부인 김상경(41)씨와 큰딸을 "꼭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득, 8학군에서 탈출시켰다.

변두리 특지학교인데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툭툭대는 큰딸을 "네가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느냐"며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 패싹해 '매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지학교 진학과 더불어 '공부에서 해방된' 정모는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즐겁고 자신있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

부담 없어지자 오히려 자신감 가득 그림 소질 뒤늦게 발견...화가 기대

고 느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안씨는 부인, 두딸과 함께 노래·영화·연극구경을 자주 간다. 최근에 가본 것은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정기공연, 영화 <칠수와 만수> 등이다. 여름방학에는 텐트를 둘러매고 등산을 가기도 한다.

얼마전 아버지의 권유로 친구

들과 함께 민예충이 주최한 4·19 30주년 기념 노래공연을 본 지혜는 "가수 이문세, 변진섭씨의 노래와 알란담 장국영 등의 노래를 즐겨 들었는데, 이날 '3당 합당'을 풍자한 가수 정태춘씨의 노래 <배반의 병아리> 등을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지난 88년까지 18년동안 송문

고 교사를 지낸 안씨의 교육관은 '아이는 스스로 자란다'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가끔 아내가 반칙을 범하긴 하지만 이들 부부는 두딸이 어릴 때부터 "...해라" "...해서는 안된다"는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도록 가르쳤고, '고등학생이라

고 떠받드는 법도 없다. 다른 집 같으면 집안의 왕처럼 군림할 고 3, 고1이면서도 자기방 청소, 저녁 밥짓기, 저녁 설거지를 번갈아가며 하고, 외국인 은행에 다니는 어머니가 출장중일 때는 점심 도시락을 스스로 싸간다. 저녁 식탁에 오르는 찌개는 아버지가 도맡아 만드는 등 집안일도 서로 즐겁게 나누어 맡는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교육철학을 깨뜨리고 두딸에게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씨는 옆에서 "그건 거짓말이다" "엄마 말에 흔들리지 마라"고 한다. 얼마전 큰딸의 그림 소질이 뛰어나 "미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부푼 아내와 큰딸에게 안씨는 "너무 욕심내지 마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안씨 집의 가훈은 '다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이다. 학교에서 자기 집 가훈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었을 때 큰딸은 창피하다고 써가지 않았고, 둘째딸은 써갔다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무슨 가훈이 이러냐"고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두딸의 가슴에 '더불어 사는 삶'을 심어주기 위해 이렇게 정했지요. 이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두 딸애가 제대로 알아차릴 때 우리집 교육은 성공하는 셈이지요."

(신연숙 기자)